

베스트셀러 다시 읽기

혼모노 성해나 지음 창비 2024

베스트셀러를 다시 읽는다는 것

베스트셀러의 사전 정의는 ‘어떤 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간에 ‘가장’ 많이 팔리진 않았어도 많이 팔린 책은 사전 밖에서 많은 의미를 생산하고 소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베스트셀러여서 읽고 싶기도, 읽고 싶지 않기도, 읽어야 할 것 같은데 내키지 않기도,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읽기도 하거나

더는 베스트셀러가 아니어서 읽고 싶기도, 읽고 싶지 않기도, 읽을 필요가 없겠다며 스쳐 지나가기도, 안 읽어도 되지만 읽어볼까 싶기도 할 겁니다.

베스트셀러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책인 걸까요....

베스트셀러는 출간되고 머지않아 중고서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베스트셀러여서 샀는데 막상 펼쳐보니 안 읽히더라, 두고두고 펼쳐볼 책은 아니더라,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때 팔자고 취급당하기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쉽게 사서 쉽게 팔 수 있는 책.

그런 책을 다시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은 각각각색이고 다종다양한 만큼 베스트셀러의 정의도 책마다 달라 다종다양하고 각각각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는 10월 ‘베스트셀러 다시 읽기’를 시작하며 이 시간을 여는 첫마디로, 신문기사의 리드 문장처럼 띄워보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흠... ‘잘’ 팔리고 ‘잘’ 읽히는 책...?

그럼, ‘잘’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다면 ‘베스트셀러 다시 읽기’ 시간에 함께하길,

2024년 출간되고 줄곧 베스트셀러 자리에 머문 『혼모노』와 함께하는 시간이

잘 팔리고 잘 읽히는 책의 ‘잘’을 어떻게 정의해나가는지 궁금한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

프로그램
강사
진행 기간
진행 일시
진행 장소
참여 자격
참여 인원
참여비
지원 사항
다.)

베스트셀러 다시 읽기
한승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총 8회입니다.)
모루도서관 3층 사랑방
동시대 한국 소설에 관심 있는 누구나
10명
무료
『혼모노』 (모든 참여자 분께 책을 한 권씩 드립니다.)



© 교보문고, 알라딘

‘베스트셀러 다시 읽기’는 2024년 출간되고 꾸준히 세간의 관심을 모은 소설집 『혼모노』 (성해나 지음, 창비, 2024)를 따로 또 같이 읽으며 **동시대 한국 소설이 어떻게 현실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문학과 안팎에서 많은 사람에게 읽힌 소설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쓰는지 살펴보고, 같은 작품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읽고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소설을 읽는 현실과 현실을 읽는 소설은 어떤 말들로 재고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설에서 발견하는 현실과 현실에서 발견하는 소설의 관계를 생각해보며,
소설이 재해석하는 현실은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을지 또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혼모노』에 실린 일곱 편의 단편 소설은 **‘두 얼굴’**을 되묻습니다.
길티와 모럴, 겉과 속, 진짜와 가짜, 희망과 절망, 위선과 진심, 사랑과 집착, 꿈과 현실.
모두 **두 얼굴의 진실**을 묻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진실**은 무엇일까요.
『혼모노』에서 물음을 던지고 받는 진실을,
일곱 편의 단편 소설에서 고른 열쇳말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해봅니다.

첫 번째 시간 . 오리엔테이션

『혼모노』가 어떤 책인지 개괄하며 ‘이야기’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문학이 되는 이야기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혼모노』의 단편 소설들은 어떤 이야기로 사회와 삶을 조명하고 질문하는지,

『혼모노』의 이야기가 여기 모인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이야기해봅니다.

두 번째 시간 . 「길티클럽:호랑이만지기」

소설 속 ‘모럴’은 ‘길티 플레저’를 되물습니다. 이도 발톱도 뿔힌 늑은 호랑이를 만져보는 체험 프로그램처럼,

예술은 모럴을 뒤집는 손바닥 같은 것일까요. 호랑이를 만져보고 인생 영화를 만나는 짜릿한 경험의 모럴이란 무엇일까요.

믿고 싶은 모럴과 믿어야 할 모럴이 어긋나는 세상에서 손바닥 뒤집 듯 뒤집을 수 없는 모럴,

뒤집히지 않는 모럴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시간 . 「스무드」

‘스무드’라는 제목은 소설 전체를 내포합니다. 소설 속 <스무드>는

‘스테인리스스틸을 미끈하게 세공한 검정색 구’ 형태의 작품인데요,

둥글고 미끈한 겉은 정체성을 물음에 부칩니다. 속이 보이지 않는 구는

속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듀이’의 ‘고국’은 미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억은 ‘표면’일까요, ‘안쪽’일까요.

‘매끈한 세계’의 깊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야기해봅니다.

네 번째 시간 . 「혼모노」

‘혼모노’는 ‘진짜’라면 ‘니세모노’는 ‘가짜’입니다.

소설 속 ‘나’와 ‘신아기’는 ‘장수할멈’이 머물다 가는 몸인데요.

장수할멈은 혼모노일까요, 니세모노일까요. 작두 위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숨을 추는 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믿음이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무엇인지,

세상에서 진짜라는 것과 가짜라는 것은 어떻게 믿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 「구의 집:갈월동98번지」

‘인간을 위한 공간’이 기대하는 ‘희망’은 하루종일 잘 드는 별일 수도 있고 하루 십 분 잠시 새어드는 빛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집의 시간은 인생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인간을 위한 집이 구원하는 인생은 어떤 시간일 수 있을까요. 소설 속 ‘구의 집’은 ‘여재화’와 ‘구보승’의 삶을 담고, 여재화와 구보승의 삶은 구의 집을 담습니다. 공간을 걷도는 인간이 아는 만큼 모르는 삶을 이야기해봅니다.

여섯 번째 시간. 「우호적 감정」

회사 동료인 ‘알렉스’, ‘수잔’, ‘진’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까워지는 장면엔 ‘딤섬’이 있습니다. 수잔이 퇴사하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뒤 전 직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도 ‘딤섬’이 있는데요. 육즙을 쫄은 얇은 피가 터지는 순간, 진은 물을 찾았다면 알렉스는 쉽게 삼키지 못합니다. 차가운 물을 찾는 것도 뜨거운 육즙을 머금고 있는 것도 ‘우호적 감정’의 발로일까요. 수잔은 퇴사하기 전 알렉스에게 “애쓰면 더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육즙은 어떻게 삼켜야 할까요. 함께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시간. 「잉태기」

소설은 엄마이자 며느리에게서 시작해 할아버지이자 시부를 거쳐 딸이자 손녀인 ‘서진’에게 다다릅니다. 다 읽고 나면 곧 태어날 서진의 아들이 떠오르는데요. 핏줄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이라기보다 핏줄에 집착하는 관계는 사랑일 수 있을까요. 아들이든 딸이든, 핏줄이든 아니든, 부모와 자식을 잇는 가족은 ‘기겁고’ ‘악착스럽고’ ‘추하고’ ‘치열하고’ ‘치졸한’ 사랑을 잉태하는 듯싶습니다. 이토록 ‘자연스러운’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해봅니다.

여덟 번째 시간. 「메탈」

록 중에서도 메탈은 뜨겁습니다. 뜨거운 청춘은 언젠가 식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림’, ‘조현’, ‘시우’는 메탈로 친구가 됐는데요. 메탈이 식고 소원해진 이들의 청춘도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림은 아지트를 정리하며 한동안 연락하지 않던 조현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겁니다. 조현은 전화를 받을까요. 셋이 새긴 ‘코발트빛 타투’는 희미해졌어도 ‘파도 소리’는 변함 없죠. 뜨겁고도 미지근한 청춘, 여전하면서 여전하지 않은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일 러 두 기

회당 두 시간인 프로그램은 대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강사가 오늘 활동의 운을 떼고(이 시간에 읽는 단편 소설을 소개하고 화두를 제시하며 강사의 감상을 이야기하고),

강사가 제시하는 생각거리들을 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한 다음

참여자들이 더 나누고 싶은 말들, 못다 한 말들을 자유롭게 나눕니다.

마지막 시간인 여덟 번째 시간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전반 한 시간은 (강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메탈」을 훑아보며 참여자들의 감상을 이야기합니다.

후반 한 시간은 그동안 함께 읽은 『흔모노』를 돌아보며 특히 마음에 드는 작품, 인상적인 장면, 기억에 남는 대목 등을 나눕니다.

첫 번째 시간에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이나 방식과 관련해 참여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듣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참여하기 전 본 계획안을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